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 2023년 2월 14일(화) 13:30-17:30
 - 2차 인터뷰심의 : 2023년 2월 20일(월) ~ 2월 21일(화) 09:10-18:10
- 회의장소 : 비대면 온라인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은 앞서 사업 지원을 받은 바 있는 창제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고 이의 연속작업을 지원해서 기존 작품의 기술적 한계나 미흡한 점, 그로 인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창의성 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코로나 팬데믹에 누구도 예외는 없었기에, 창제작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끈고하고 절박하게 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이 주력하는 바, 어떤 상황에서건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그 성과를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작품을 후속 지원하고자 하며, 여기에 힘입어 창작자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도 멈추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업선정 과정은 후속지원의 타당성과 당위성 검증에 중점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대상 중 ‘일반공모’의 경우에는 예술성과 수월성(30%), 기술활용역량(30%), 파급력과 지속가능성(20%), 수행역량(20%) 등을 심의기준으로 삼고 지원서 및 관련 제출자료 등을 전수 검토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사업의 결과보고서와 이번 공모지원서를 비교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타당성과 그에 부합하는 작업역량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연속지원’ 대상은 연속 창제작의 동일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고루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의 기획안과 사업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공정히 조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상의 심의를 통해 17건의 지원신청 중 총 6건의 일반공모와 총 3건의 연속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작품의 기술적 변주에 머물지 않고 차별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노하우를 갖춘 창작력과 안정적인 물적 지원은 때로 창작자에게 동어반복의 딜레마를 안겨줄 수도 있는데, 선정된 사업들은 기존 작품에서 미진했던 한계와 시행착오, 그리고 이를 수정 보완할 기술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의 진척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선정사업은 여러 예술장르와 형식들을 기술로 융복합하는 토탈 아트의 경향을 심화하고 있으며, 도입하는 AI 및 XR기술과 이머시브 오디오 환경기술은 이에 최적의 기술임을 드러냈습니다. 작품의 인터랙션 기술을 강화해서 체험자의 인터랙션이 개별 또는 그룹 유형으로 맞춤형되었고,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감각도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및 후각 등으로 확장되는 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의도에 기반하는 기술적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아무리 고도의 기술이라 해도 기술이 예술을 잠식하지 않아야 창의적인 기술융합예술이 지속될 것입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대체로 활용기술을 전문가(업체)에게 단순 위탁하지 않고 창작자가 기술을 몸소 이해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정체성에 대한 성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진실과 실제에 관한 질문, 낯선 관계나 사건 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인간 사회의 면면 등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첨단기술 시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창작자의 고유한 시선으로 사회를 탐색, 관찰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창작세계를 일구는 뜻심이 결국 많은 이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공모에 지원하신 모든 창제작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 심의위원 일동